

SPRING*

광덕산의
친구들과
사계절 이

봄
□



광덕산을 지키는 사람들



광덕산의 친구들과 사계절 1 - 봄

지 은 이 광덕산을 지키는 사람들
역 은 이 심선옥 · 신현철 · 이종명
편 집 인 유진수
펴 낸 곳 천안YMCA
주 소 330-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1033번지
전 화 (041) 575-9897
팩 스 (041) 577-2385
E-mail chymca@chollian.net
홈페이지 http://chonan.ymca.or.kr
발 행 일 2004년 1월 5일
디 자 인 이명재
발 행 처 사과나무
도 운 이 조삼래 · 조갑선 · 서정희 · 심재한 · 이연화 · 전성환 · 박근수 · 김상섭



04	환경서약 다짐
	1. 들어가며
05	1-1 책 이야기
06	1-2 광덕산 안내
07	3월 우편엽서
	2.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09	2-1 자연관찰 요령
12	2-2 생태계 이해(생태계 피라미드)
13	4월 우편엽서
	3. 광덕산의 봄
15	3-1 탐사. 봄 꽃 (초본)
20	3-2 탐사응용. 생활속의 자연(나물과 요리)
26	3-3 탐사응용. 자연친화 생활(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27	5월 우편엽서
29	3-4 탐사. 봄 꽃 (목본)
30	3-5 탐사응용. 노래와 율동
35	3-6 탐사응용. 심성개발활동(우리가족을 닮은 광덕산)
36	3-7 탐사응용. 자연친화적 생활(천연염색)
	4. 부록
49	4-1 광덕산 꽃산행 지도
54	4-2 광덕산에 피는 야생화
60	광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환경서약다짐

- 01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 02 생명이 하나이듯이, 자연과 우리도 하나입니다.
- 03 하나뿐인 지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04 우리는 자연속에서 더불어 사는 생활양식을 배우려 합니다.
- 05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일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06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힘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 07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일에 힘써 마을 환경을 지키는 훌륭한 녹색과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08 병들어가는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물을 지켜나가는 일을 이웃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1. 등산가방

1-1 책 이야기

- 천안의 많은 시민들에게 광덕산은 천안의 명물 '호두의 생산지', 때로는 지친 생활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건강한 생태가 살아 있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등산로를 걷다 낮익은 들풀을 만나고, 반가운 곤충을 만나면 누구나 그 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산이고, 그곳에 갈 때 마다 늘 자주 만나는 생물이면 더 그렇습니다.
- 환경교육 자료(도감이나, 환경교육교재)가 있으면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적이거나, 너무 이론적이거나, 대부분 한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거나, 휴대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쉽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천안 YMCA는 오랜 시간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광덕산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유아,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청소년 환경동아리, 학부모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두와 함께 탐사하고, 관찰해 오는 과정 중에 조금은 더 넓고 새롭게 광덕산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광덕산에 사는 식물, 동물, 곤충들만을 탐사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옛이야기, 재미있는 놀잇감, 계절의 변화, 지역의 특색, 정취를 함께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역 환경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천안 YMCA는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등산가방에 '작은 광덕산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2 광덕산 안내

우리가 찾아가는 천안 광덕산은?

천안의 어린이라면 가족과 함께 광덕산에 올라 본 경험이 모두 있겠지요?

주말이면 광덕산은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답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쉼터이자 수많은 생명의 터전인 광덕산은 어떤 산일까요?

광덕산은 천안시 광덕면, 아산시 송악면, 공주시 유구면에 걸쳐 있는 해발 699m로 충남내륙지역에서 서대산, 계룡산, 오서산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단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만 광덕산에 오르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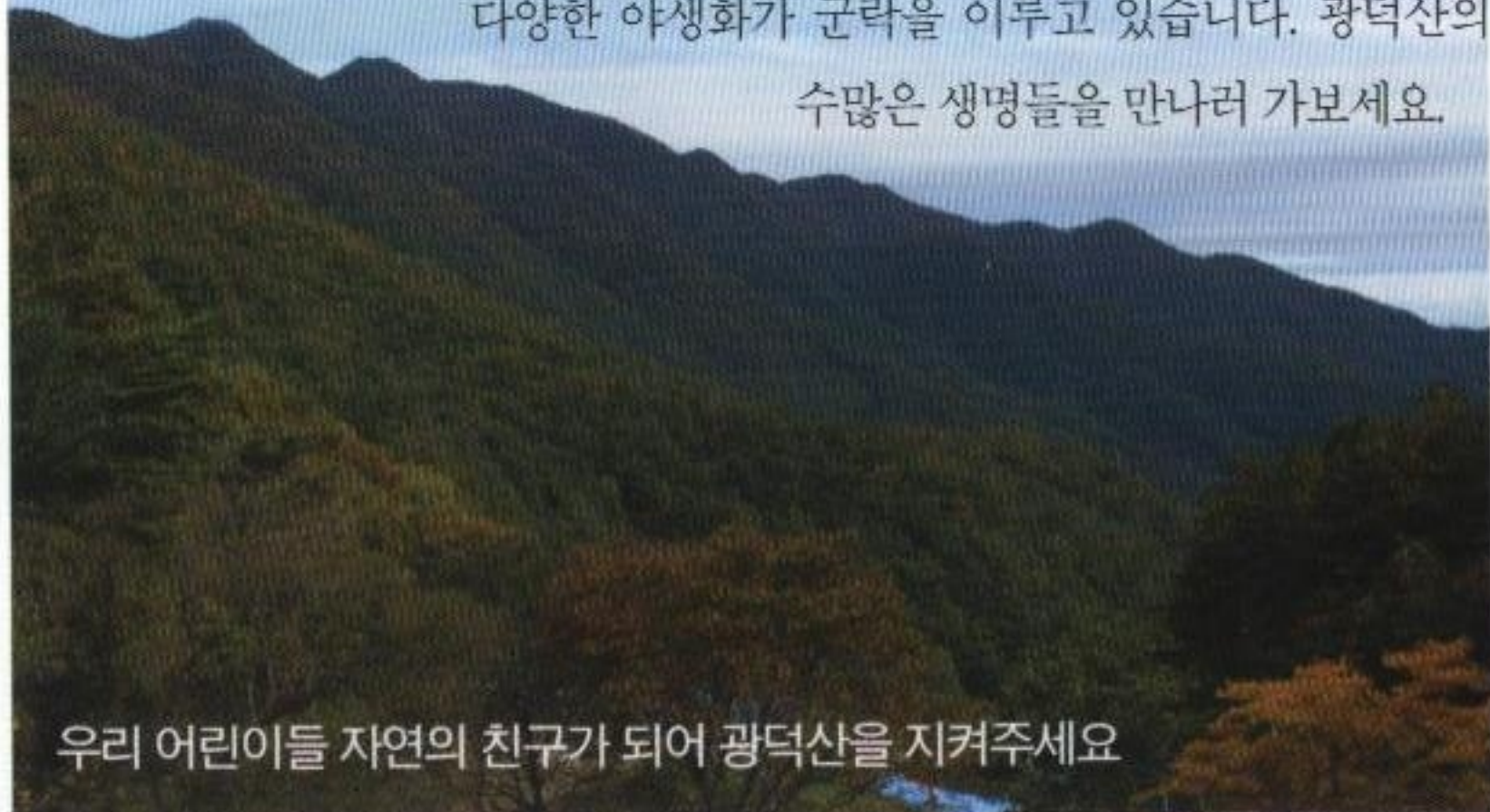
둥글고 덕스러운 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골짜기마다 다른 생명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반길 거예요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꼬꼬리, 소쩍새, 원앙 등 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다람쥐, 청설모, 멧토끼, 고라니 등 17종 이상의 포유류와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에 꼬리치레도롱뇽, 맹꽁이, 북방산개구리, 무자치, 능구렁이, 살모사 등이 서식하고, 특히 풍서천의 상류에는 파파리반딧불과 늦반딧불이 큰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또한 참종개, 버들치 등 우리 나라 고유의 많은 물고기가 있지요 특히 광덕산은 은방울꽃, 애기나리, 피나물군락 등

다양한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덕산의 수많은 생명들을 만나러 가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연의 친구가 되어 광덕산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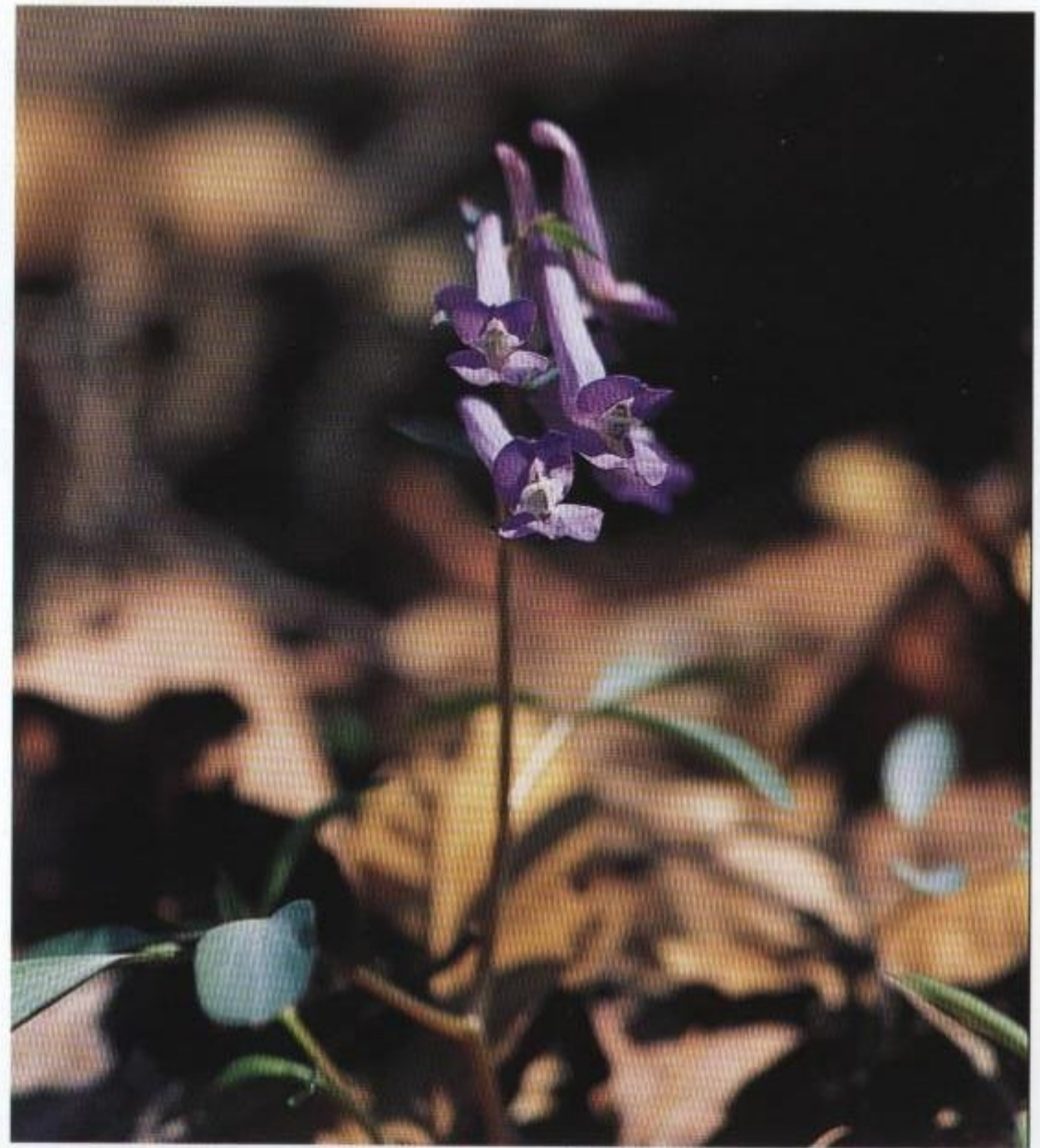
3 월 우 편 엽 서

바깥선대로 오려서 소중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세요~~

보내는 사람

□□□ - □□□

광덕산 야생화



현호색

“양귀비”로 알고 있는 꽃으로 줄기 끝에 연한 홍자색으로 무리져 피는데, 마치 물고기들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독성 식물이지만 둥근 뿌리줄기는 약으로 쓴다.



받는 사람

Vertical line with seven empty square boxes for an address, separated by a horizontal line.

서
명
피
우



2.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2-1 자연관찰요령

▶ 자연을 닮은 어린이 약속

- 01 풀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바람소리, 개울가의 조약돌, 새소리, 먹이를 나르는 개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02 사람도 숨을 쉬고, 진흙도 숨을 쉬고, 나무도 숨을 쉬고, 숨쉬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숨쉬는 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03 잘난척하듯 마구 밟고 꺾으며, 크게 떠들고 춤추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자연에게 예의를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04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는 자연의 변화를 늘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05 자연을 닮은 아이들 모임 후에는 늘 자연 속에서의 내 모습과 행동을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야단을 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06 자연을 닮은 마음을 친구와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나뭇잎에 대해서 알아봐요!!

• 잎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닥의 줄이 있어요.

이것을 잎맥이라고 하는데, 잎맥은 뿌리로 흡수된 물을 잎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또한 잎이 나는 위치에 따라서 3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01 () - 한가지에서 잎이 번갈아가며 나는 잎
(예: 미루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02 () - 두장씩 마주 붙어서 나는 잎
(예: 참깨, 아까시나무, 산초나무, 옷나무, 붉나무..)



03 () - 층을 이루며 한층에 잎이 여러장 나는 잎
(예: 도라지, 익모초..)

• 잎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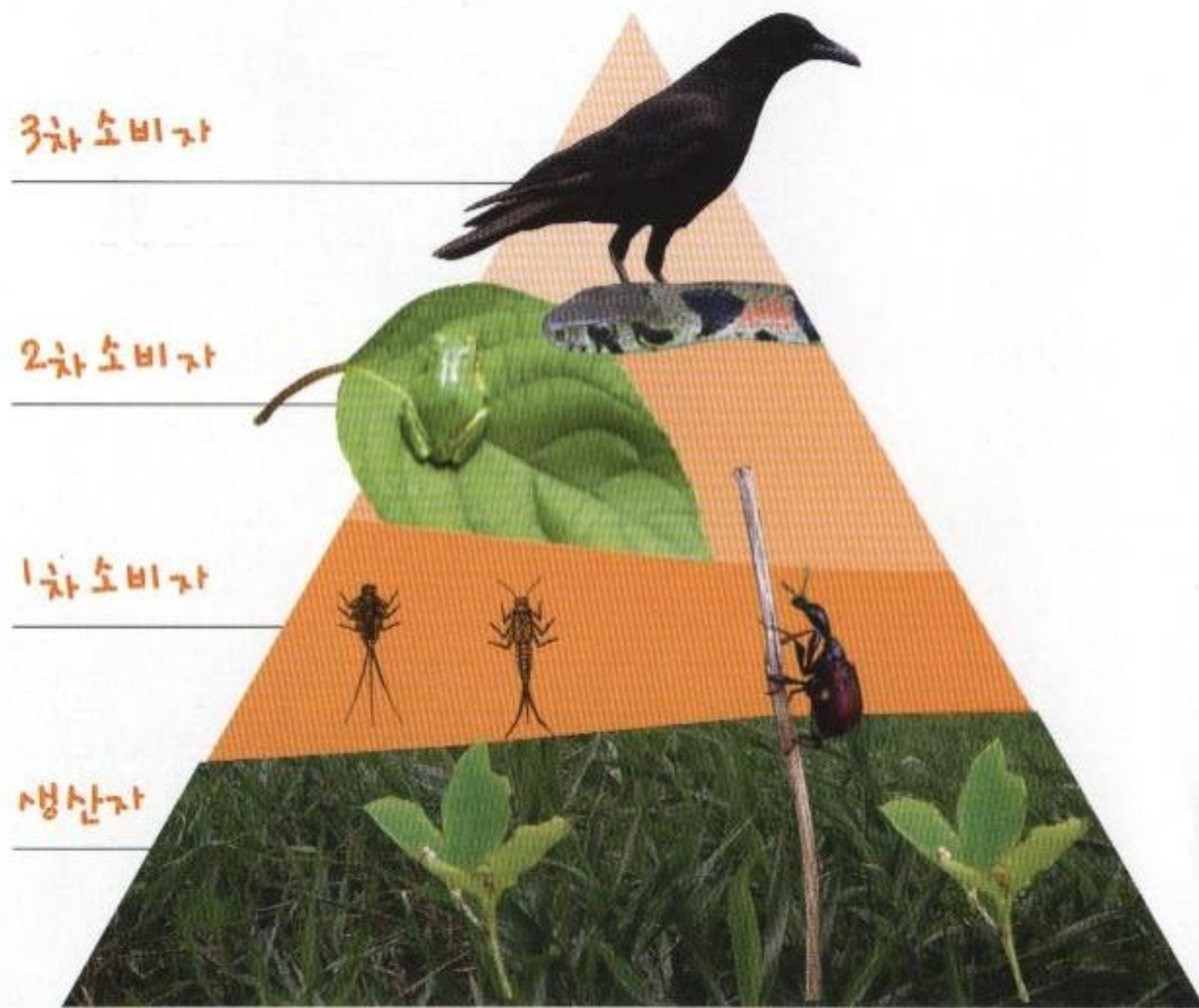


▶ 소나무 바늘잎을 구별해 봐요.

- () - 잎이 2갈래이고, 줄기가 빨강지요.
- () - 잎이 3갈래이고, 서양에서 들어온 소나무지요.
- () - 잎이 5갈래이며, 소나무는 아니에요.



2-2 생태계이해 (생태계 피라미드)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의 먹이 피라미드입니다.

4 월 우 편 엽 서

바깥선대로 오려서 소중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세요~^^

보내는 사람

□ □ □ - □ □ □

광덕산 야생화



구슬봉이

산지 낮은 숲 속 그늘에서 자라는데 앞 뒷면이 붉은 자주색을 띠고 꽃은 보라색이다. 줄기가 밑에서 갈라져서 모여 나고 잔 돌기가 있다.

우표붙이던 곳

서
정
표
아

받는 사람

□
□
□ - □
□
□
□



3. 광덕산의 봄

3-1 탐사. 봄꽃 (초본)

광덕사, 갈재능선, 정골 입구에서 또는 어디서든 흔히 볼수 있는 봄 야생화입니다. 보면, 아~ 하고 알만한 것들입니다.



* 은 방울 꽃



* 산 자 고



* 피 나 물



* 노루귀



* 광대나물



* 동글레



* 꿀풀



* 으름



* 복수초



* 큰으아리



* 구슬봉이

나무종류는 사실 잎이나 열매를 보기 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내용적인 부분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 호 두 나 무



* 갈 참 나 무



* 딱 나 무



* 박 쥐 나 무



* 당 단 풍 나 무



* 산 뽕 나 무



* 산 앵 도 나 무

3-2 탐사응용. 생활속의 자연 (나물과 요리)

♡ 식용으로 도 쓰입니다.



냉이

냉이는 햇빛이 잘 드는 들이나 밭, 밭둑이나 길가에서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가을에 싹이 터서 어린 뿌리잎을 땅바닥에 둥그렇게 펼친채 겨울을 나지요. 줄기잎은 어긋나게 붙고 긴 타원꽃로 생겼어요. 뿌리잎은 겨울 동안 검붉은색을 띠지만 봄이 되면 점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4~5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희고 자잘한 꽃들이 다닥다닥 피지요. 꽃잎은 네장이고 열매는 거꾸로 세운 세모꼴이지요(하트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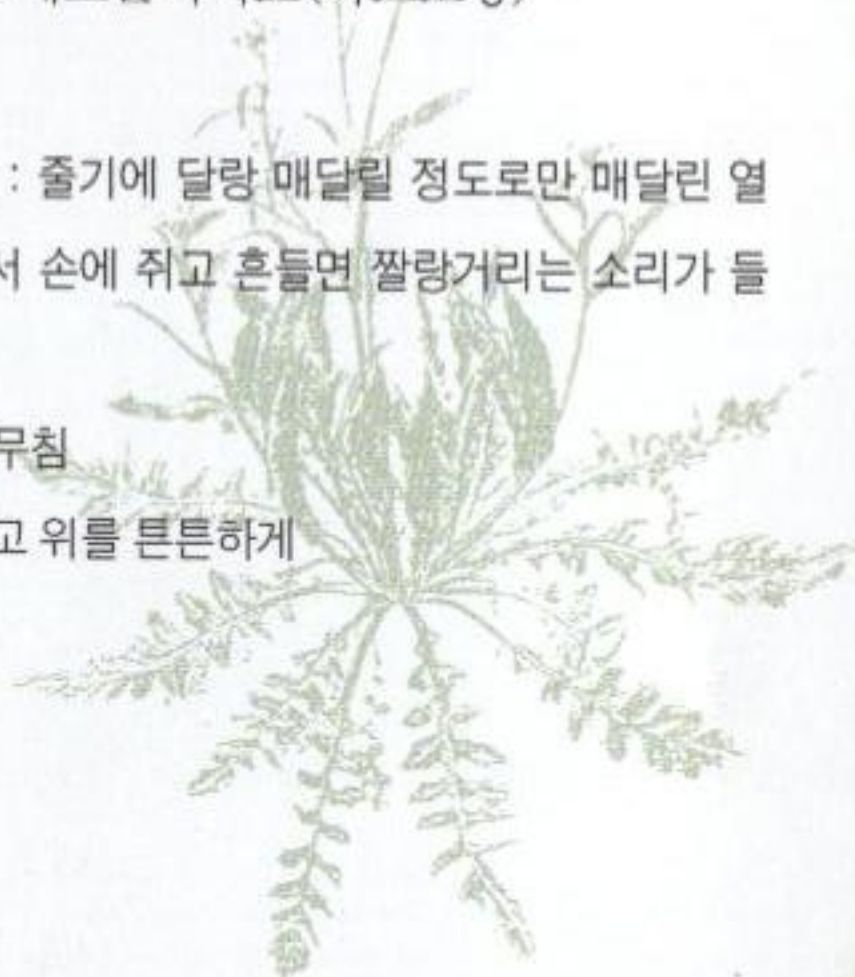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냉이꽃 째랑이 : 줄기에 달랑 매달릴 정도로만 매달린 열매를 똑똑 끊어서 손에 쥐고 흔들면 째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 냉이국, 냉이무침

◇ 눈을 밝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원추리

여름에 노란 꽃이 피는데, 봄에는 그 싹을 나물로 먹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흐르는 개울물에 씻어 참기름에 소금 살짝 뿌려 볶아먹으면 참 맛납니다.

꽃다지는 낮은 산과 들, 길가나 밭에서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달래나 냉이와 함께 봄에 뜯어먹는 나물이지요. 망초나 달맞이꽃, 냉이처럼 뿌리잎을 방석모양으로 땅에 찰싹 붙이고 겨울을 납니다(이런 모습을 로제트라고 함). 3~4월에 줄기 끝에 노랗고 자잘한 꽃이 피어나는데 꽃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볼품이 없지만 무리를 지어 자라기 때문에 꽃다지 꽃이 한창 피어나면 온 밭이 노랗게 되면서 참 북스럽습니다.

* 냉이꽃과 닮았는데, 냉이꽃은 하얗고,

꽃다지 꽃은 노랗습니다.

♡ 어린잎이나 줄기는 데쳐서 먹음

◇ 말린 씨앗은 기침약이나 오줌 내기약. 부스럼약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쭙은 산과 들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 들판 어디든 쭙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흔한 풀이지요. 쭙쭙 잘자란다 해서 쭙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앞쪽은 초록색이고 뒤쪽은 솜털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가을에 줄기와 가지 끝에서 자잘한 황토색 꽃이 다닥다닥 피어나지요. 줄기나 잎 전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 쭙국, 쭙떡

◇ 상처 난 곳에 으개서 발라보기

- 최고의 후시딘, 모깃불, 뜸약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꽃다지



쭙

◇ 약용 또는 쓰임새

할미꽃

약간 건조하고 척박한 산의 양지 쪽, 잔디밭, 묘등성이에서 흔히 자랍니다. 꽃잎 안쪽을 제외한 모든 곳에 흰색털이 많이 나 있는게 특징입니다.



◇ 소독약품이 귀할 때는 할미꽃 뿌리를 재래식 변기 속에 집어 넣어 여름철에 벌레(구데기)가 생기는 것을 예방. 꽃과 꽃가루에도 독성

산괴불주머니



양귀비과. 몸 전체에 분을 칠한 듯 흰색이 돌고, 줄기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노란색의 옷감을 펼쳐놓은 듯 무리를 짓고, 멀리서 보면 꽃방망이 같습니다. 현호색보다는 꽃이 약간 가늘고 큰 차이점은 노란색입니다. 고양이 꼬추를 닮았다 해서 괴불이래요~

◇ 유독성식물

흰털괭이눈

물기가 많은곳, 특히 바위 곁에 붙어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고양이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괭이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들판이나 길가, 빈터에서 저절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로제트로 겨울을 남. 잎은 뿌리에 붙어서 나는 뿌리잎만 있는데, 잎 한 장은 깃꼴로 갈라지고 끝이 세모꼴이거나 창모양이지요. 민들레꽃 한송이에는

작은 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잎 한 장처럼 보이는 것이 알고 보면 꽃 한송이에요. 자세히 보면 꽃잎 하나하나마다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추고 있지요

♡ 잎은 나물로

◇ 뿌리는 가래 기침을 멎게 하는 약으로



줄기는 없고 잎은 뿌리에서 여러장이 모여서 뿌리잎을 이루지요. 이른봄에 잎자루가 긴 가름한 잎이 사방으로 납니다. 이어서 잎겨드랑

이에서 긴 꽃대가 꽃꽂이 올라오고 그 끝에 보라색 꽃이 피지요. 제비꽃은 알고 보면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꽃색깔이나 사는 곳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우리 나라만 해도 남산 제비꽃, 줄방제비꽃, 노랑제비꽃, 흰 제비꽃, 태백제비꽃 따위의 여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 그리스의 나라꽃

♡ 잎은 나물로 ◇ 뿌리나 잎은 약으로

민들레

제비꽃

노루귀

꽃이 필 때면 줄기에 긴 흰 털이 많이 나는데 그 모양이 노루의 귀와 비슷하다 하여 노루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풀은 대개 햇볕이 없는 그늘진 숲속 근처에서 많이 자라며 뿌리와 줄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랍니다. 잎은 모두 뿌리에서 모여 나며 긴 잎자루는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깊게 세 개로 갈라진다. 갈라진 잎은 달걀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뒷면에 솜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 유독성식물

현호색



양귀비과 사촌. 보라색, 연자색, 홍색계통의 꽃이 피며, 작고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끌지는 못하지만 예로부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잎이 빗살모양이면 빗살현호색, 댓잎모양이면 댓잎현호색, 잎이 가늘게 갈라진 것은 세잎현호색으로 부릅니다.

◇ 유독성식물



흔히 아네모네로 알고 있는 꽃으로 하얀꽃이 키에 비해 꽤 큰 편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의 바람꽃



뿌리의 독성이 강해 먹으면 미친다고 해서 미치광이풀입니다.

미치광이 풀



숲속음습지에서 자라고 포의 윗부분이 모자처럼 구부러져 있고 유독성식물입니다.

천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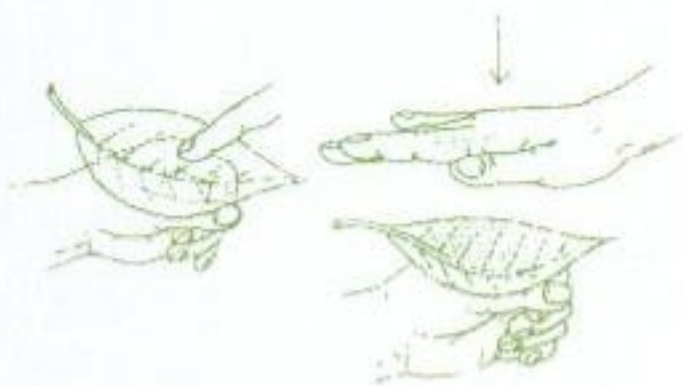


3-3 탐사용용. 자연친화적생활(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들뜰지기- 들뜰과 놀이로 친해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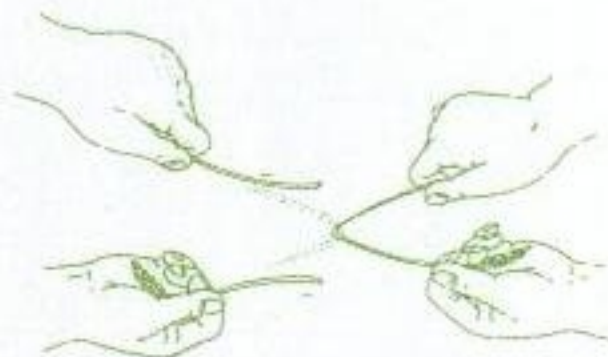
◎ 풀잎 딱총 놀이

왼손을 원통형이 되게 오므리고 그 위에 넓적 한잎 (취녕쿨잎)을 놓아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힘껏 내쳐 친다. 잎이 공기 압력을 받아 '핑' 하는 소리가 나며 잎 가운데에 구멍이 난다



◎ 풀싸움(줄기, 꽃) 놀이

- 1) 질경이 등의 줄기를 서로 걸어서 잡아당긴다.
- 2) 줄기가 먼저 끊어지면 진다.



◎ 강아지 풀씨름 놀이

널빤지 위에 원을 그린다음, 그 안에 강아지풀을 놓고 주먹으로 퐁퐁 쳐서 상대방 말을 원 밖으로 보내면 이긴다.



5 월 우 편 엽 서

바깥선대로 오려서 소중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세요~^^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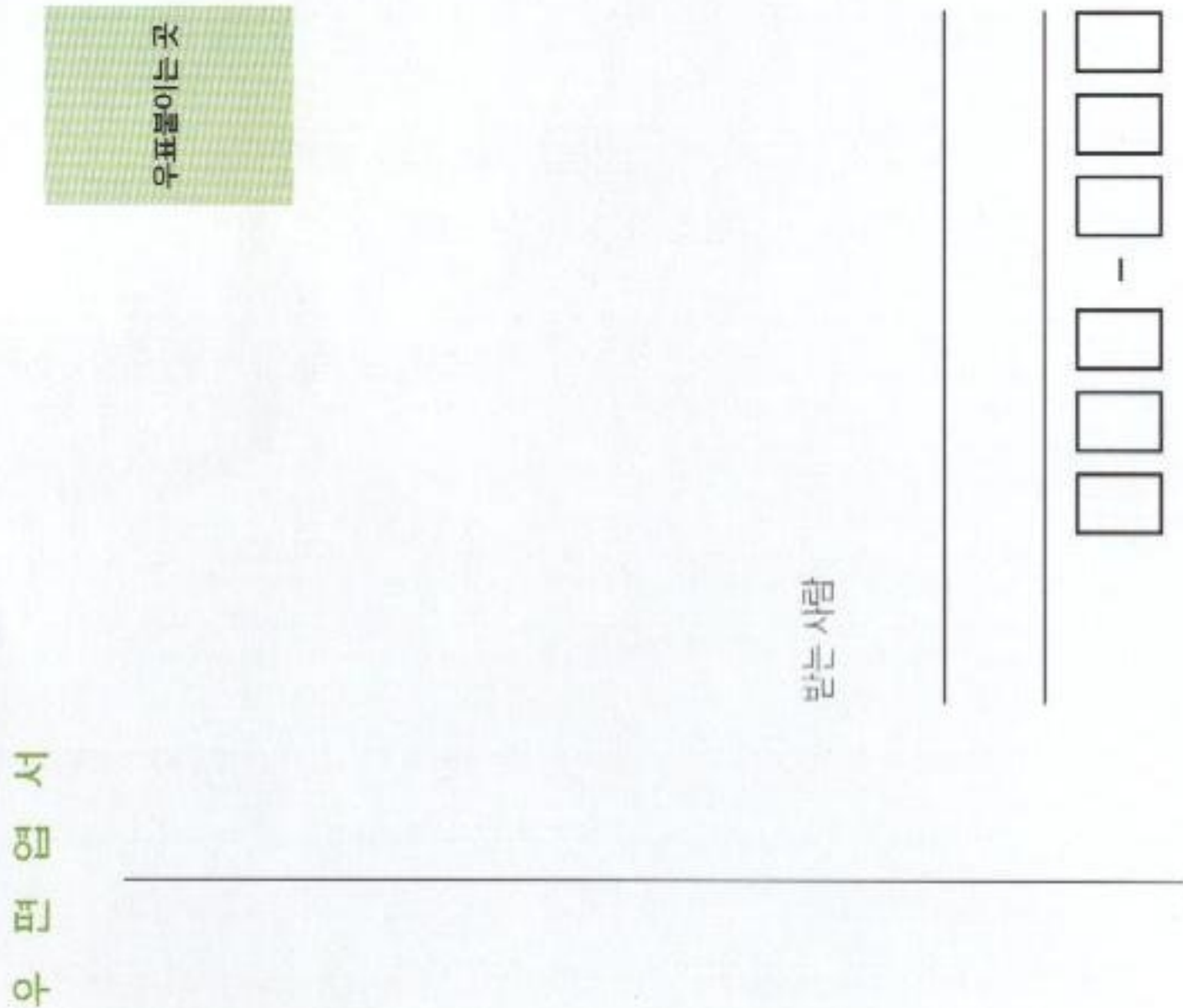
□□□ - □□□

광덕산 야생화



족도리꽃

전국의 산 나무 그늘 밑에서 자란다. 꽃의 모양이 족도리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방에서는 세신(細辛)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한다.



3-4 탐사. 봄꽃 (목본)

나무지기 - 숲엔 어떤 나무가 살고 있을까?

- 줄긋기퀴즈

- 소나무
 - 총총나무
 - 참나무
 - 호두나무
 - 생강나무
 - 자귀나무
 - 붉나무
 - 은행나무
 - 느티나무
 - 산초나무
- 고려 시대에 처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심어진 곳이 바로 광덕이랍니다.
 - 우리 나라 것은 잎이 둘로 갈라지고, 수입 나무는 잎이 셋으로 갈라진대지요?
 - 일년에 한층씩 자란다지요. 마치 나무중에 아파트와 닮았답니다.
 - 밤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잎이 오므라듭니다. 꽃으로 술을 담급니다.
 - 갈참, 떡갈, 졸참, 신갈 나무 이들이 모두 이 나무랍니다. 열매를 도토리라고 하지요
 - 향기가 참 독특해요. 음식의 비린내를 없애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넣었다고 합니다.
 - 화석에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에 있던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꽃과 가지를 꺾으면 이 냄새가 납니다. 잎이 박쥐처럼 생겼어요.
 - 늙은 선비들은 이 나무처럼 마음이 넓고, 인자한 사람이 되길 바랬답니다.
 - 잎에 붉은 색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단풍이 든답니다.

3-5 탐사용용. 노래와 율동

나무 노래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옷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동지선달 사시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아흔 지나 백양나무
 앵돌아져 앵두나무
 칼로 찢러 피나무
 엮어졌다 엄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천리길

동산에- 아침 햇-살 구름 뚫-고 솟아와
 새-하얀 접시 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발아래-는 구름 바-다 천-길을 뺨았-나
 산아래 마-을-들아 밤새 잘 들 잤느냐
 나뭇잎-이 스쳐가네 물방울이 날-으네
 발목에 영킨 뽕냉쿨 우리 갈길 박아도
 노루 사슴 뛰어 간다 머리 위엔 종달새
 수풀 저편 눈두렁엔 아기 염소가 노닌다
 가-자- 천릿길 굽이 굽이 처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간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오 천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오 천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누리에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며는 모두 기뻐하리라 우
 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 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거예요
때로는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라면 두렵지 않아
사랑 넘칠 그날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자

작은 세상

1.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2. 사랑은 입에 있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것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나아가리라
** 산이 놓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아름다운 우리 나라

저기 산이 춤춘다 저기 강이 달린다
저기 하늘 숨쉴다 저기 꿈이 흐른다
멋진 설악산에서 맑은 경포대에서
푸른 다도해에서 외딴 울릉도에서

* 아름다운 우리 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몽게구름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몽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 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몽게 구름 되리라



학교가는길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 애 날 보고 호박꽃이래
주먹코에 딸기코에 못생긴 얼굴 너는 뭐가 잘났니
호박꽃도 꽃이냐고 날보고 놀리는데
나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멀치도 생선이니 예예예예



해야 솟아라

어찌하여 우리 민요 외면 당하고
어찌하여 외국팝송 판을 치나요
에야 디야 에야 디야 서글픈 나라
에야 디야 에야 디야 해야 솟아라

우리 이야기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안되는게 너무 많아요 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며는 어린 시절 까-먹나봐
우린 알아요 어른들 말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만 조-금 만더 우리마음 알아주시면 랄라라라
정직하고 남 도울 줄 아는 좋은 사람 될-터인데

고향바다

봄이 오면 바다는 찰랑 찰랑 차알랑
모래밭엔 게들이 살금살금 나오고
우리동무 뱃전에 나란이 앉아
물결에 한들 한들 노렐 불렀지
내 고향 바다 내 고향 바다
자려고 눈감아도 화안히 뵈네
물고기 비닐처럼 반짝이는 내 고향 바다 내 고향 바다



3-6 탐사용용. 심성개발활동

(자연속 감정이입, 우리 가족을 닮은 광덕산)

- 우리 가족을 닮은 광덕산 -

누구는?	무엇을 닮았다!	왜?

예) 아빠 / 참나무 / 든든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족을 돌봐 주고, 넉넉해 보이기 때문



3-7 탐사응용. 자연친화적생활 (천연염색)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이 발달하고 과학화되면서 다양한 염색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인공 염료가 개발되어 견뢰도(빛이나 마찰에 대해 견디는 힘)가 좋아지고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주변 자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뿌리 등을 염료 재료로 하여 주로 한 가지 색으로 고루 들이기를 한 후 다른 색의 천을 이어 붙이거나 덧대어서 다채롭게 표현했다.

그 예를 한복의 저고리 깃이나 고름, 이불, 옷 덮개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조각보는 우리 조상들의 미감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문명 혜택이 없던 그 시대로 돌아가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상상하며 물들이기를 해보자.

봉숭아물을 손톱에 들여본 사람이면 누구나 염색을 할 수 있다. 주변에서 풀을 짓이겨보면 진한 풀색의 물이 나온다. 이때 풀은 염료재이고 풀물은 염액이다. 이 염액에 천을 담가 넣고 열을 가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염색이 된다.

주변의 풀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에 시선을 두어보자. 노란색의 금불초, 개망초, 국수나무, 개나리, 꿀풀, 단풍잎, 봉숭아, 민들레, 쑥갓, 애기똥풀, 엉겅퀴 등은 옛부터 전해오는 아주 훌륭한 염료재이다.

훌륭한 염료재란 적은 염료재로 많은 양의 염액을 얻을 수 있고 특별한 매염 처리 없이도 염색이 잘 되는 것을 말한다. 염료재에서 염액을 추출한 후 염색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연물로 염색하는 과정

염색하기(침염을 중심으로)

염색에 필요한 도구

— 스테인리스 그릇, 비닐 장갑, 집게, 버너, 칼, 저울, 믹서기

- 01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를 잘 씻어 잘게 썬다(믹서나 커터기를 이용해서 갈면 더욱 좋다).
- 02 잘게 썬 재료가 잠기도록 물을 넣고 20분간 끓인 뒤 옮겨낸 염료재를 건져내면 염액이 된다.
- 03 필요한 염료 양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 04 염액에 젖은 천을 넣고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끓인다.
- 05 염색한 천을 염액에서 꺼내 식힌 후 찬물에 여러 번 행군다(30~40분 정도).
- 06 그늘에서 말리거나 물기를 대강 제거한 후 다림질을 한다.
- 07 액자에 넣어 장식하거나 티 테이블 깔개로 이용하거나 셔츠에 대고 바느질하여 꾸민다.

염료의 색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도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온도나 시간에 따라, 또는 매염 처리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손으로 하는 천연 염색의 매력이다



학습 활동에 대한 제안

동식물에서 염료를 추출하는 천연 염색은 화학 염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까다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며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천연 염색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색상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해보는 물들이기의 체험 학습은 그 식물에 대한 이름을 익히거나 식물의 특징 이해하기와 더불어 우리 주변의 이름 모를 풀들도 조상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였음을 알게 하는데 의의를 두어도 좋다.

오늘날의 화학 염료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이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이며 천연 염료가 주는 차분하고 세련되고 포근한 맛이 부족하여, 염색하기 불편하고 값이 비싸더라도 천연 염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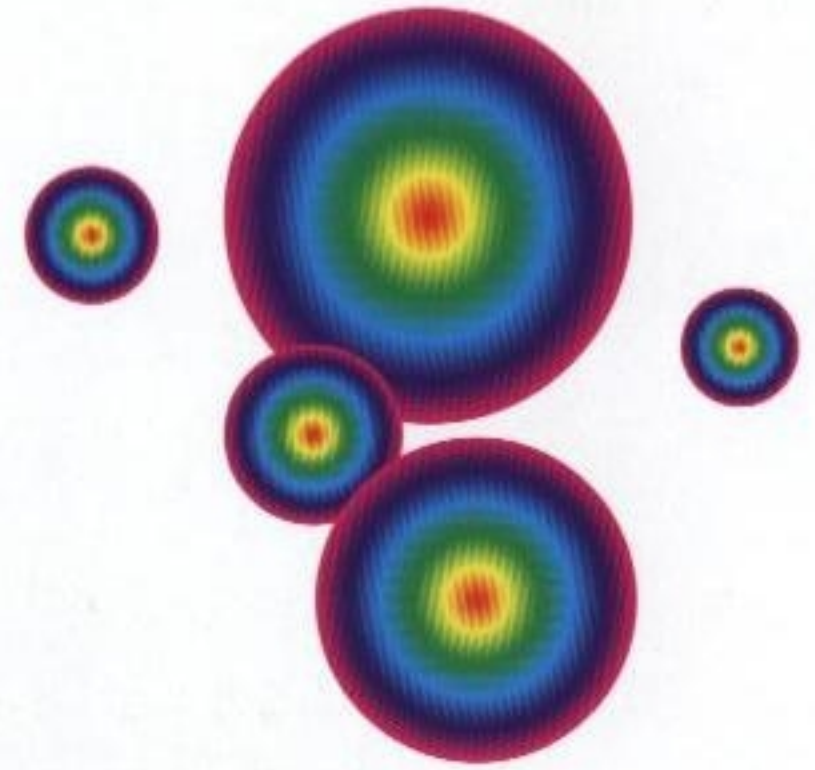
또 우리의 전통에 숨어 있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자신이 만든 것에 가치를 두게 한다.

고학년의 경우 물들이기 수업은 염료재나 물의 양을 저울에 달게 하고 끓이는 시간등의 조건에 따라 같은 식물이라도 색상이 다양함을 체험하게 한다.

염색하는 방법은 한 가지 색으로 물들이기와 문양을 나타내는 문양염이 있다. 문양염은 방염재에 따라 간단한 흘치기 염색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천의 종류는 천연 섬유인 면이나 마, 실크 등이 좋으나 약간의 혼방도 특별한 느낌을 준다. 자신이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나 보통 천이 물에 젖으면 색이 진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진한 색이 되었을 때 꺼낸다. 염색 후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야 사용할 때 손에 염료가 묻어나거나 세탁했을 때 물이 빠져 오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염료 식물들에 대해서는 대원사에서 출간한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중 『염료 식물』을 참고하면 좋다).

흘치기 염색법과 문양 표현



◎ 흘치기 염색 과정

흘치기 염색은 가장 원시적인 염색법으로 아이들과 쉽게 해볼 수 있다.

뭉을 실의 굵기를 달리 하거나 실로 뭉을 때 당기는 정도에 따라 부드러운 문양이나 선명한 문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냥 뭉는 것이 아니라 천에 콩이나 돌맹이 등을 넣고 뭉으면 재미있는 표현이 된다

- 01 문양을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실로 단단하게 뭉는다.
- 02 뭉은 천을 염료에 담근 후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끓인다.
- 03 천을 염액에서 꺼내 식힌 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행군 다음 그늘에 말린다.
- 04 다 말린 뒤에는 뭉었던 실을 풀어내고 다림질하여 완성한다.

손쉽게 해보는 천연 염색 실습

◎ 천연염색 실습 의미

- 1 아이들의 자발적인 흥미에 따라서 아이들이 제안하고 어른이 함께 해본 활동이다.
- 2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탐색을 할 기회가 된다.
- 3 자연색을 찾아보는 기회가 된다.

◎ 나들이 갈 때 염색활동 활용 방안

준비물 : 20센티미터 정도의 사각 흰색 면이나 비단

- 1 나들이 가는 길에서 준비해 간 천에 나뭇잎, 꽃, 줄기, 뿌리 등을 채취하여 문질러본다(가능하면 각각의 색깔에 이름을 써놓으면 좋다).
- 2 나들이 끝나고 와서 그늘에 말린다.
- 3 마르기 전과 후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고 느낀다.
- 4 매염제(소금, 백반, 구연산, 식초, 잣물+탄산수소나트륨, 가성소다)를 각각의 염색될 천 위에 묻히고 색깔의 변화를 관찰한다.
- 5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색이 잘 되는 염료로 자기 옷을 염색해 본다.

◎ 애기똥풀을 이용한 염색

재료 : 애기똥풀, 스테인리스 냄비, 체, 옷, 나무젓가락

- 1 버찌와 오디 등 풀이나 열매를 이용하는 것에 호기심이 많아졌을 때 염료식물 책을 구입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염료식물을 보며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식물이 염색할 수 있는 재료임을 알고는 염색을 하자고 이야기한다.
- 3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보라고 하자 애기똥풀과 또 다른 풀을 골랐는데 “우리 나들이 할 때 이 풀을 보았어?” 하는 질문에 애기똥풀로 하자고 한다. 애기똥풀은 평소 나들이 때 많이 보았고 줄기에서 노란 액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손톱에 바르기도 하며 가지고 놀았던 풀이다.
- 4 책을 아이들과 함께 보며 계획 세우기를 세운다.
- 5 비닐봉지를 들고 자주 다니던 마을로 나가서 아이들이 보았던 애기똥풀을 뜯는다.
- 6 돌아와서는 두 모듬으로 나누어 풀을 자른 아이들이 쓰던 작은 가위로 충분히 잘게 자르도록 한다.
- 7 애기똥풀을 20분 정도 끓인다.
- 8 체로 건져내고 염색할 옷을 넣어서 10분간 끓이고는 건져내어 말린다.
- 9 일주일 뒤 세탁비누로 빨아서 햇볕에 말린다.
- 10 물놀이 가서 입기로 하고, 염색한 옷을 빨아보라고 한다.



◎ 버찌, 오디, 풀잎 이용

- 1 나들이 중에 버찌와 오디를 따먹으면서 옷에 문질러보고 색을 관찰하고 풀잎을 따서 문질러 보고 연한 색이 스며드는 것을 관찰한다.
- 2 따온 열매를 흰옷에 눌러서 아이들 나뭇대로 모양을 만들고 마른 다음에 색과 모양을 관찰한다.

◎ 포도 껍질 염색

재료 : 포도껍질, 매염제(백반), 스테인리스 냄비, 나무젓가락, 중성 세제, 체, 염색할 천

- 1 포도를 먹고 남은 껍질만 모아서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량 부은 다음 끓인다.
- 2 포도껍질은 물러서 조금만 끓여도 색이 우러나오므로 오래 끓일 필요는 없다.
- 3 다 끓인 포도껍질은 체로 받쳐내고 맑은 포도물을 만든다.
- 4 염색할 천이나 옷을 넣어 5분 정도 주무른 다음 건져 낸다(천을 넣고 끓여도 되나 색이 조금 다르다).
- 5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헹구어 다시 맑은 물에서 포도물이 안 나올 때까지 맑게 헹구어 그늘에서 말린다.
- 6 백반 2%를 푼 물에 다 마른 천을 넣어 3분 정도 주무른 다음 다시 맑은 물로 헹구어 그늘에서 말린다.

◎ 밤 껍질 염색

- 1 풋밤이 아닌 여문 밤을 통채로 가성소다 2%를 넣고 무를 때까지 삶는다.
- 2 이 뒤는 포도 껍질 염색과 방법이 같다.

◎ 치자 염색

재료 : 치자, 매염제(백반), 스테인리스 냄비, 체, 염색할 천(면티, 내의 손수건, 보저기 등), 나무젓가락, 중성세제,

- 1 치자를 냄비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2~3일 우려낸다. 아이들이 자주 열어보면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다.
- 2 치자를 으개서 체에 받쳐 맑은 치자물을 만든다.
- 3 맑은 치자물을 따뜻하게 데운 뒤 염색할 천을 넣고 10분간 담궜다가 건져서 꼭 짠다(끓이지 않는다).
- 4 중성세제를 2~3방울 푼 물에 헹구어 낸 뒤 맑은 물에 치자물이 안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 5 그늘에 겹쳐지지 않게 널어 말린다(햇빛을 보면 색이 달라진다).
- 6 말린 염색 천을 백반 2% 물에 다시 헹구어 말린다.
- 7 염색된 천을 가지고 옷놀이 말판, 주사위 놀이판, 인형 등을 만든다.

사진으로 보는 천연염색 실습

◎ 치자로 손수건 염색하기

- 1 치자를 잘게부수어 물을 넣고 15~20분간 끓인다
- 2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어 무늬를 만든다.
- 3 색소가 우려나온 치자를 채에 받쳐 걸러 낸다.
- 4 치자물의 온도는 60~70℃에 손수건을 넣고 주무른다.
(시간은 20분 정도)
- 5 맑은 물에 씻는다.
- 6 고무줄을 푼다.
- 7 그늘에서 말린다.
- 8 손수건 완성.



◎ 황토로 면목도리 염색하기

- 1 황토를 채에 받쳐 물을 넣고 황토물을 만든다.
- 2 천을 깨끗이 씻는다.
- 3 황토물에 굵은 소금을 넣는다.
- 4 황토물에 천을 넣는다.
- 5 천에 황토물이 골고루 묻도록 주무른다.
- 6 맑은 물에 씻는다.
- 7 천을 펴서 말린다.
- 8 완성된 목도리.



[색의 세계] 민주주의 앞당긴 염료의 역사

* 기원전 1만 5천년 전에 그려진
라스코 동굴 벽화.
아직도 그 색채가 선명하다

현대 생활에서 색깔은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옷이나 건물은 그 디자인과 더불어 색깔 때문에 더욱 빛나고, 신호등이나 표지판의 색깔은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는 동시에 위험도 막아준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그 색깔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색깔은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다.

색깔을 이용한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 프랑스의 라스코동굴에는 기원전 1만5천년 전에 빨강, 노랑, 갈색, 흑색 등으로 그려진 벽화가 아직 까지도 그 선명한 색깔을 자랑하고 있다. 수천년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아름답게 채색된 유품들이 발굴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 인디아 잉크는 검댕

과거의 유물들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차츰 대량으로 합성된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인디아 잉크 또는 중국 잉크라고 부르는 먹은 접착제에 뼈나 타르를 태운 검댕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짙은 색과 내구성을 가진 훌륭한 잉크로 사용된다. 탄산칼슘, 황산칼슘, 산화납, 고령토는 흰색 안료로, 산화철은 갈색 또는 황갈색의 안료로, 그리고 카드뮴이나 바나듐의 화합물도 여러 가지 색깔의 안료로 사용된다. 이산화티탄은 오래 전부터 쓰이던 산화납과는 달리 인체에 독성이

없어서 흰색 그림 물감은 물론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됐다. 옷감이나 종이 또는 가죽을 물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염료(染料, dye)는 섬유와 염료의 분자 사이의 강한 화학결합을 이용하는데, 염료는 주로 유기물질로 만든다.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이용한 염료의 역사는 4천년이 넘으며, 전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염료를 사용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천연 염료 대신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된 합성염료의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의 사람들은 천연염료를 많이 사용한다.

◆ 빨간색 염료는 토지세

제조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염료는 로마 시대에 티리안 퍼플 또는 로알 퍼플 등으로 알려졌던 자주색 천연 염료다.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뮤렉스 브란다리스라는 바다 달팽이의 내아가미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만들었다. 달팽이의 분비액을 공기 중의 산소에 노출시키고 햇빛을 쬐어주면 몇 차례 색깔이 바뀌다가 마침내 모직물이나 견직물에 사용할 수 있는 청색이나 자주색의 염료가 만들어진다. 이밖에도 고대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는 꼭두서니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알리자린이라는 빨간색 염료를 얻는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 이 염료는 10세기경에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또 열대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또는 깍지진디에서는 안트라퀴논 계통의 빨간색 염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목서초(木犀草)의 씨앗, 줄기, 잎이나 북미산의 떡갈나무 껍질에서는 플라보노이드계의 노란색 염료가 만들어진다. 연지벌레에서 추출하는 코치닐이라는 염료는 멕시코인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하던 것으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졌고,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말린 깍지진디의 눈에서 얻는 케르메스라는 염료는 가장 오래 전부터 알려진 빨간색 염료로 로마의 승전 장군에게 주어지거나 중세의 지주들이 토지세로 받기도 했다.



◆ 1 만 2 천 마 리 의 달 팽 이 로
1 . 2 g 의 염 료 를

천연 염료는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았다. 따라서 왕이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염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염료 이외에도 백반과 같은 매염제(媒染劑)가 필요했기 때문에 염색 기술은 국가 비밀로 취급됐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염료 공장 밖에서 로얄 퍼플을 만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정도였으니 일반인에게 천연 염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쪽(남), 치자, 잇꽃, 오가피, 꼭두서니, 모과, 석류, 산수유 등으로 만든 천연 염료로 물들인 옷감을 입을 수 있었다. 왕이나 관료들은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입된 비싼 염료로 염색한 화려한 옷으로 그 권위를 자랑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흰색의 무명옷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천연 염료는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만2천마리의 달팽이를 잡아서 만들 수 있는 티리안 퍼플의 양은 1.2g에 불과했고, 7만 마리의 연지벌레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삶으면 4백50g의 코치닐을 얻을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인도가 원산지인 인디고페라라는 종류의 향료 식물인 쪽(藍, 인디고)의 잎에서도 로얄 퍼플과 같은 종류의 염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중해 달팽이는 더 이상의 희생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식량 생산에 쓰여야 할 경작지가 일부 귀족들을 위한 쪽 재배에 쓰임으로써 일반인의 생활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 전국 공동육아 어린이집 99 겨울교사대회 자료집에서 따옴



4. 부 록

4-1 광덕산꽃산행지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광덕산 그 넓은 품 속으로!

천안과 아산, 공주에 걸쳐있는 광덕산(699미터)은 태안반도에서 시작한 금북정맥의 산줄기에서 북쪽으로 형성된 산으로, 이 산줄기는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망경산을 거쳐 태화산에 이르며, 다른 한 줄기는 설화산으로 이어진다. 광덕산은 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덕(廣德)이라는 말 그대로 넓고 크고 덕이 있는 산으로 1994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방울꽃, 복수초를 비롯하여 533종류의 식물, 꼬리치레도롱뇽, 원앙, 소쩍새, 붉은배새매 등 587종류의 동물, 파파리반딧불, 애반딧불, 강도래 등 수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광덕산에서 살아가고 있다. 광덕산은 그 산 높이만큼이나 긴 계곡도 지니고 있다.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에는 5-6월, 무더운 여름밤을 연푸른색으로 물들이면서 그리운 짝을 찾는, 순박한 사랑의 등불로 불리우던 반딧불이 살아가고 있는 광덕계곡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강당골에는 한 때 학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광덕계곡에는 광덕사라는 절이 자리잡고 있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한다. 또한 인근에 삼태리마애불, 봉곡사, 외암민속마을, 마곡사, 맹사성고택 등 많은 문화유적들을 아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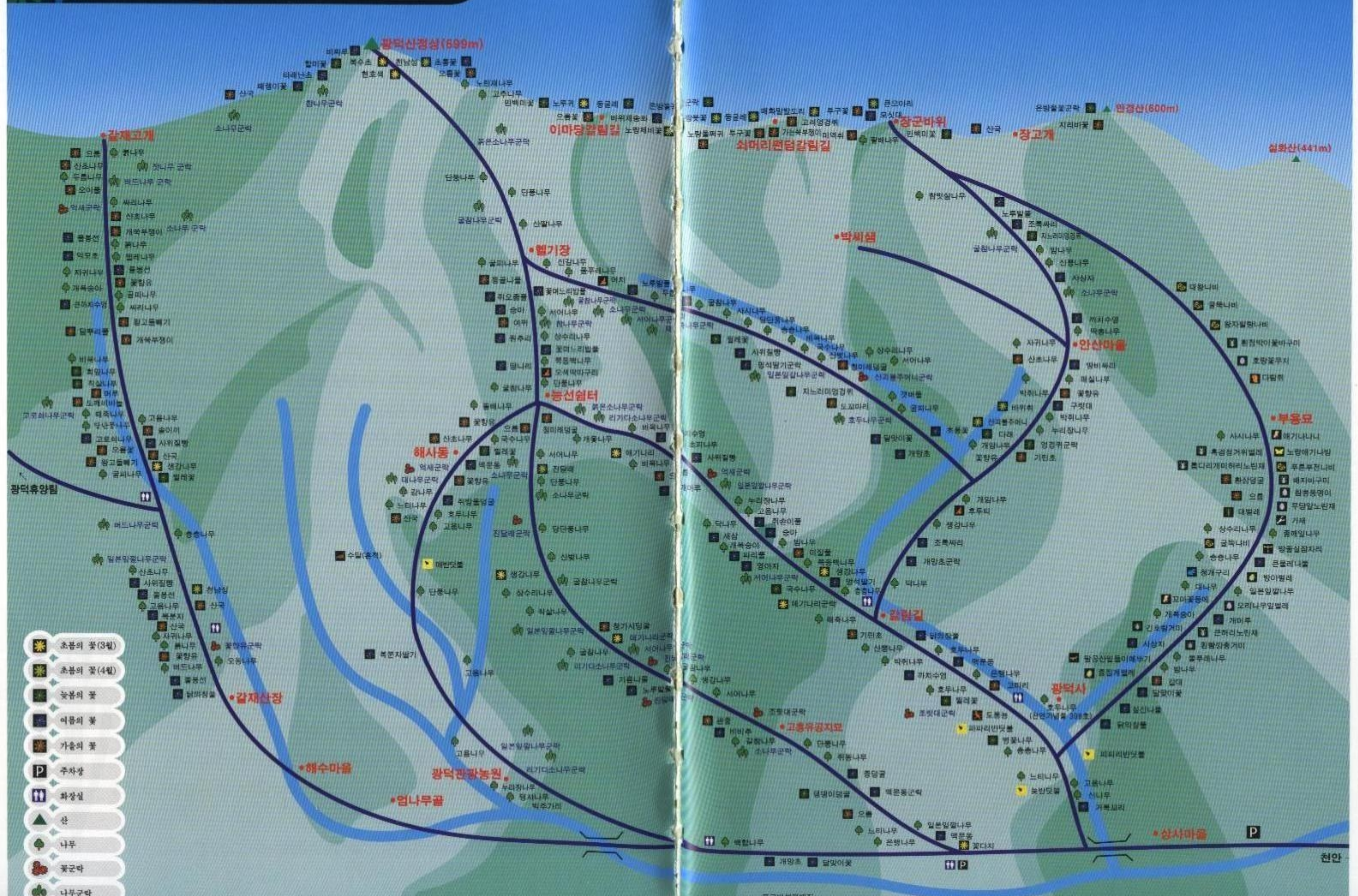
광덕산의 산행길

- 천안 광덕사 → 능선쉼터 → 헬기장 → 정상(가마봉)
- 광덕사 → 박씨샘 → 장군바위 → 정상
- 광덕사 → 부용묘 → 장군바위 → 정상
- 아산 강당골(태종유원지) → 무영로(만인로) → 이마당약수터 → 일마당 → 정상
- 강당골 → 절골 → 장고개 → 장군바위 → 정상
- 마곡리 → 정골 → 이마당약수터 → 일마당 → 정상



광덕산 꽃 산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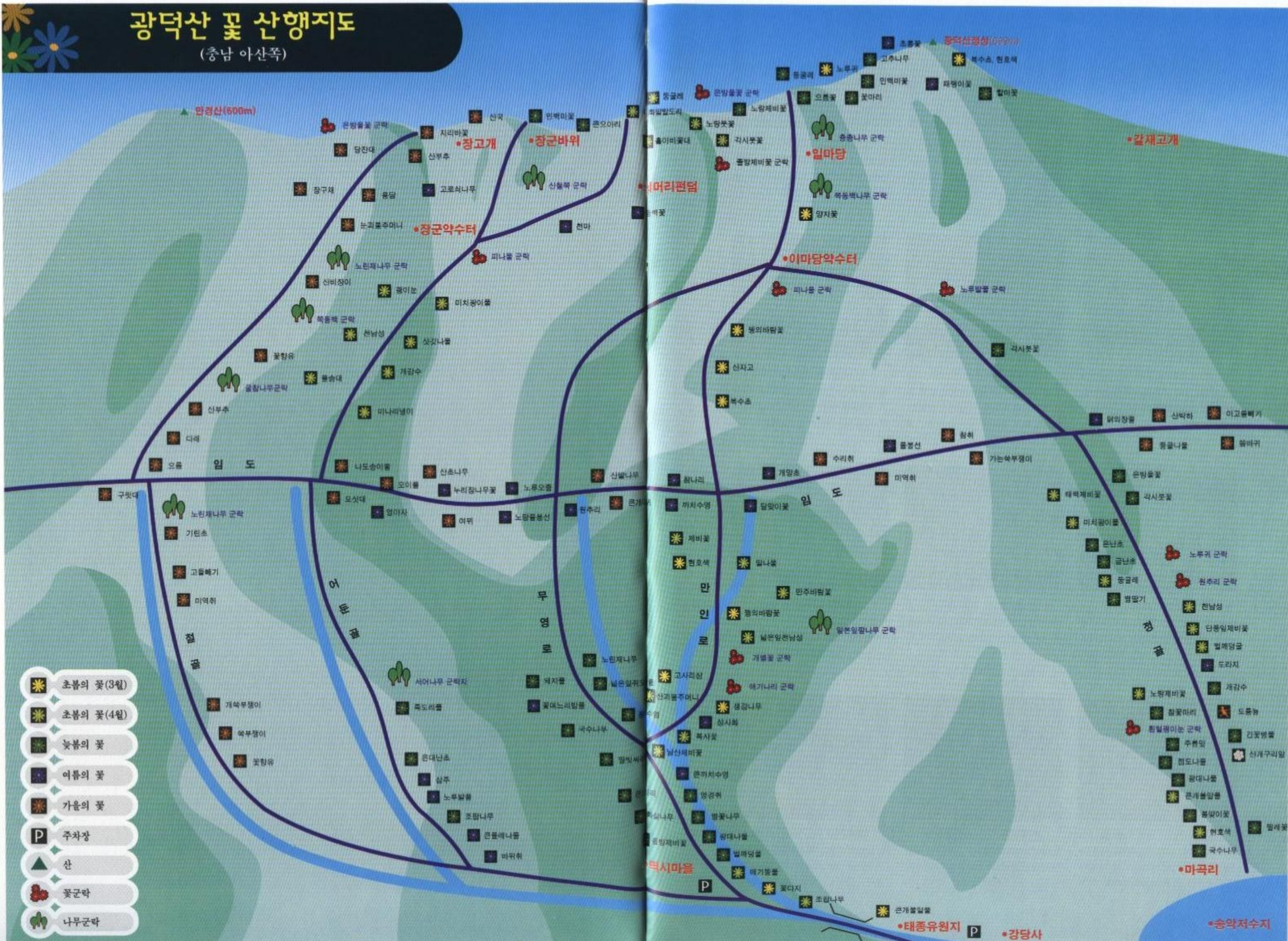
(충남 천안쪽)



- 초봄의 꽃 (3잎)
- 초봄의 꽃 (4잎)
- 늦봄의 꽃
- 여름의 꽃
- 가을의 꽃
- 주차장
- 화장실
- 산
- 나무
- 꽃길
- 나무길

광덕산 꽃 산행지도

(충남 아산쪽)



- 초봄의 꽃(3월)
- 초봄의 꽃(4월)
- 늦봄의 꽃
- 여름의 꽃
- 가을의 꽃
- 주차장
- 산
- 꽃군락
- 나무군락

태종유원지 P 강당사 송악저수지

4-2 광덕산에 피는 아생화



□ **봄의 바람꽃**

흔히 "아네모네"로 알고있는 꽃으로 하얀 꽃이 키에 비해 꽤 큰 편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봄의 꽃



□ **흰털괘이는**

물기가 많은곳, 특히 바위길에 붙어 자라는 여러해 살이풀, 고양이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괘이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큰구슬봉이**

산지 낮은 숲속그늘에서 자라는데 잎 뒷면이 붉은 자주색을 띠고 꽃은 보라색이다.



□ **산괴불주머니**

물기가 있는 곳에 자라는 두해살이 풀로 노란색꽃을 무리져 피운다. 꽃은 길다란 대롱처럼 생겼는데, 한 쪽끝은 벌어져 있다.



□ **천남성**

숲속 음습지에서 자라고 포의 윗부분이 모자처럼 구부러져 있고 유독성식물이다.



□ **현호색**

이른 봄에 등산로에 흔하게 보이는 식물로 둥근 뿌리줄기를 약으로 쓴다.



□ **미치광이풀**

뿌리의 독성이 강해 먹으면 미친다고 해서 미치광이 풀이다.



□ **노루귀**

이른봄 눈을 뚫고 나온다해서 파설초(破雪草)라고 한다. 꽃대나 꽃이 올라올때 노루의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산자고**

길이 30cm미만의 꽃줄기가 나오고 꽃은 줄기 끝에 흰색의 1송이가 붙어 있다.



□ **피나물**

완전히 봄이 왔음을 알리는 노란색꽃을 피우는 식물로 줄기를 꺾으면 적황색 즙액이 나와 피나물이라고 한다.



□ **애기똥풀**

길가에 피며 자동차 배기가스의 황성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를 꺾으면 애기똥처럼 노란액이 나온다.



□ **노랑제비꽃**

높은 산 정상부근에서 자란다. 보통의 제비꽃이 보라색을 띤 것과는 달리 이꽃은 노란색을 띤 것이 특징이다.



□ **복수초**

때로 눈속에서 필 정도로 이른 봄에 피며 노란꽃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복수초(福壽草)라는 이름이 붙었다.



□ **광대나물**

인가부근 햇밭에서흔히 자란다. 꽃은 붉은색을 띠고 식용으로 쓰인다



□ **지느러미영경귀**

줄기전체에 지느러미같은 날개가 많이 붙어있으며 침같은 보라색 꽃을 피운다.



□ **큰꽃으아리**

산기슭 양지의 덩굴속에 나는 낙엽 덩굴나무, 흰색의 대형 꽃받침에 흰색꽃이 핀다.



□ **으름덩굴꽃**

양지바른 곳에 자라는 덩굴식물, 길다란 열매가 가을에 달리는데, 바나나와 비슷하여 "한국 바나나"라고도 부른다.



□ **민백미꽃**

원줄기를 자르면 백색 유액이 나오며 꽃은 흰색이다.



□ **통통글레**

길다란 원줄기에 길다란 잎이 서로 엇갈려 달린다. 땅속줄기를 말린 다음 볶아, 차로 마신다.



□ **은방울꽃**

하얀 방울처럼 생긴 꽃. 영어로는 "계곡에 피는 백합(the lily of the valley)"이라고 부른다.



□ **할미꽃**

전체에 하얀 털이 나있고, 꽃은 땅을 향해 굽어져 피어 할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미꽃"이라고 부른다.



□ **꿀풀**

산과 들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여름에 꽃이 피었다가 곧바로 말라 죽기 때문에 하고초라고 한다.

여름의 꽃



□ 닭의 장풀

닭의 벼슬을 닮은 꽃을 피우며 달개비라고도 불린다. 천연염료로 쓰이던 꽃이다.



□ 패랭이꽃

메마른 돌틈이나 길가 밭에 흔히 자란다. 꽃모양이 옛날 조상들의 모자 패랭이를 닮았다.



□ 다래꽃

덩굴식물로,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맛이 있는 계란모양의 다래열매를 맺는다.



□ 삼주

가까이서 볼수록 더 예뻐지는 꽃이다. 꽃둘레와 잎에 거친 바늘가시가 있다.



□ 노루발풀

찬 겨울에도 잎이 푸른 식물인데 숲속 그늘에 흔히 자란다.



□ 바위취

숲속 그늘지고 습한곳에 드물게 자란다. 잎의 모양이 범의 귀와 닮았다.



□ 큰까치수영

약간 훼손된 지역에서 여러해살이풀이고, 어린 순은 "싱아"로 알려져 있다.



□ 노랑물봉선

산골짜기 냇가나 습지에 자란다. 전체가 염료로 쓰이며 독을 품고 있다.



□ 도라지꽃

진한 보라색 꽃을 피우며, 굵은 뿌리를 맺어 식용으로 사용 된다.



□ 참나리

호랑나리라고도 부르는데 꽃잎에 얼룩 반점이 있고 어린잎은 나물로 먹으며 비늘줄기는 약으로 쓴다.



□ 꽃머느리밭풀

숲 가장자리나 길가에 흔히 자란다. 꽃의 모양이 벌린 잎에 밭풀이 두 개담긴 모양을 닮았다.



□ 천마

높은산 그늘지고 습한곳에 드물게 자라며 환경부지정 특정보호식물이다.



□ 기린초

평의 비둘기라고도 하며 주로 바위틈이나 자갈밭 등 건조한 곳에 자란다.



□ 동자꽃

높은산 숲 가장자리에 자란다. 동자승의 전설이 깃든 아름다운 꽃이다.



□ 사위질빵

골짜기의 양지에서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다. 꽃은 꽃잎같이 보이는 4개의 꽃받침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인동덩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다.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긴다. 허를 내민 모양으로 하얀색 꽃이 피었다가 황색으로 변한다.



□ 타래난초

햇볕이 잘드는 풀밭에서 자란다. 잎이 뿌리에서 나온다. 꽃은 줄기 위부분에 분홍색으로 여러 개 실타래 모양으로 달려차례로 핀다.



□ 끈끈이대나물

바닷가 또는 산간 지역에서 기르며 전체에 흰색이 돌며 털이 없고, 윗부분의 마디 밑에서 끈끈한 점액을 내보낸다.



□ 파리풀

습한 그늘에서 자라고 연한 자주색 꽃이 밑에서 위쪽으로 차례로 핀다.



□ 모싯대

산 숲속 그늘에서 자라며, 잎은 어긋나고 넓은 피침형으로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꽃은 종모양이다.



□ 무릇

산, 들의 낮은 곳 풀밭이나 길가언덕에서 자란다. 잎은 두 개씩 마주 나고 잎 표면은 곧게 패이고 끝이 뾰족하다.



□ 박주가리

꽃은 연한 자주색이다. 달걀꼴의 잎이 줄기에 마주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와 씨는 약용이다.



□ 뱀무

수양매라고도 한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잎자루가 길고 깃 모양의 작은 잎은 심장처럼 생겼다.



□ **짚신나물**

짚신풀이라고도 한다.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반달 모양이고 꽃은 노란색으로 모여 달린다.



□ **원추리**

고구마처럼 생긴 덩이뿌리로 잎끝은 뒤로 젖혀진다. 연한 노랑색 꽃이 된다.



□ **수정란풀**

그늘지고 습기 있는 곳에 자란다. 꽃은 한 송이가 밑을 향해 달린다. 풀 전체가 약용이다.

가을의 꽃



□ **쑥부쟁이**

가을꽃을 대표할만한 꽃, 전국의 산과 들 습지가 있는 곳에 흔히 자란다.



□ **꽃향유**

산과 들에 흔히 자란다. 꽃의 향기가 좋고 꿀이 많아 벌들을 많이 부른다.



□ **왕고들빼기**

충남북에서는 방구쟁이라 부르는 꽃 풀 전체를 먹을 수 있다. 특히 토끼가 잘 먹는다.



□ **산부추**

꽃은 붉은 자주색이며 잎은 어긋나고 비스듬히 위로 퍼진다. 나물로 먹을 수 있다.



□ **산비장이**

영경귀와 비슷하지만 좀 작고 잎에 가시가 적다. 어릴 때 나물로 먹으며 전체를 약으로 쓴다.



□ **당잔대**

조선삼이라고도 하며 뿌리는 도라지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 있고 약재로도 쓴다.



□ **투구꽃**

깊은 산 숲속에서 자란다. 꽃은 자주색이고 유독성 식물로 꽃모양이 투구를 닮았다.



□ **용담**

진한 보라색으로 종처럼 생긴 꽃이 하늘을 향해 자란다. 뿌리를 말려 한약재로 쓰는데 용(龍)의 쓸개처럼 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미역취**

돼지나물이라고 한다. 산과 들 풀밭에서 자란다. 노란색 꽃이 달린다.



□ **산국**

산 풀밭에서 자란다. 원줄기는 흰털이 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감국보다 꽃이 작게 핀다. 꽃을 약으로 쓰기도 한다.



□ **산박하**

갯잎나물이라고 한다. 꽃은 자주색이고 가지가 많으며 짧은 흰털이 있는 방항성 식물이다.



□ **영아자**

산지의 그늘에서 자라고 줄기를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온다. 꽃은 보라색이며 5개로 갈라진다.



□ **이고들빼기**

매채나물이라고 한다. 산과 들의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 풀 전체를 나물로 먹는다. 노란색 꽃이 핀다.



□ **이질풀**

산과 들, 길가 풀밭이나 어둡고 습기 있는 곳에서 자란다. 전체를 약으로 쓴다.

광덕산에서 관찰한 야생화입니다.

이상은 모두 광덕산에서 사는 꽃들로
광덕산꽃산행지도를 따라 생태탐사를 하며 찾아보세요. (☑ 꿀풀)

광덕산을 지키는 사람들

자연생태의 보물창고!

광덕산의 속내를 조금만 볼 줄 안다면 누구나 단번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요. 광덕산은 다양한 풀, 나무, 곤충, 새, 산짐승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등성이마다, 골짜기마다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자연의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곳이 마지막 남은 '자연 그대로' 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최근 광덕산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인정없는 초목채취, 사람들이 버리고간 쓰레기, 너무 많은 임도와 송전탑, 산림파괴...

우리는 광덕산의 친구요, 산지기가 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광덕산과 더불어 삶을 엮어 가려는 분들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 광덕산을 지켜내려 합니다.

함께 하는 일

회원들과 함께 하는 매달 정기산행 및 모임

- 야생화탐사, 곤충탐사, 조류탐사, 물속생물탐사

우리 산, 들, 물, 풀, 흙, 바람 생명을 배우는 일

- 초중고 생태교육, 생태지도자교육, 계절별 광덕산생태조사, 풍서천 살리기

우리의 터를 지키는 일

- 광덕산 파괴, 무원칙한 개발저지, 감시, 연대활동

지역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일

- 광덕산 생태사진전, 시화전, 생태지도 제작, 반딧불체험 기행

회원이 되시려면?

광덕산을 아끼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월회원가입 : 월3천원 / 월5천원 / 월1만원(자동이체)

농협 470-02-042161 예금주 김시래

전화문의 : 천안YMCA (041-575-9897-8), 아산YMCA (041-546-9877)



모듬일지

모듬이름

모듬일시 월 일 시 모듬장소

참가자 제작: 명 참가: 명

사 회 기록

모듬의식	목상			
	공동체 활동			
모듬활동	반성과 계획			
	모듬 소식			
	모듬 활동			
다음모듬계획	함께하는 공부			
	일정		장소	
	주제와 목표			
	활동 내용			
	역할분담			
알림	기타			

동·식물 생태 조사

- 1.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 2. 날씨 : 맑음, 흐림, 비(소나기), 비온후 갠, 바람, 안개

- 3. 기온 : (외부기온) ℃

- 4. 조사자 :

- 5. 조사장소 :

번호	종명	채집장소	채집형태		특징	비고
			목적	채집		
1						
2						
3						
4						
5						
6						
7						
8						
9						
10						

동·식물 생태 조사

- 1.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 2. 날씨 : 맑음, 흐림, 비(소나기), 비온후 갠, 바람, 안개

- 3. 기온 : (외부기온) ℃

- 4. 조사자 :

- 5. 조사장소 :

번호	종명	채집장소	채집형태		특징	비고
			목적	채집		
1						
2						
3						
4						
5						
6						
7						
8						
9						
10						

조사장소 현황 / 평가

1.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시 ~ 시

2. 조사장소 :

3. 참가자 :

주변환경 분석	
조사지역의 변화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위험 요인	
보호대책	
실천과제	
조사장소 현황(사진/그림)	
특기사항	